

## 서울캠 25일 학위수여식 진행

### 경주캠은 26일 문무관서...양캠 강제규군·황영숙양 수석

#### 서울캠

9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강당에서 열린다.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총장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57명, 석사 2백37명, 불교대학원 석사 6명, 행정대학원 석사 49명, 경영대학원 석사 31명, 교육대학원 석사 59명,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21명,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석사 15명,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2명, 학사 2천1백7명 등으로 총 2천6백11명이 학위를 받는다.

한편, 희망자 중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 특성화 교육을 받아왔던 참사탑 인증제의 교육 1기생으로 △송성진(무역4) △신정(전산통계4) △여상현(법4) △정지혜(통계4) △신승주(가교4) 등이 인증서를 받는다.

학사전체수석은 1백40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4.32를 받은 강제규(정외4)군이, 전체차석은 4.29를 받은 야간강좌 박영신(영문4)양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정혜련(선학 4.17) △문과대=박성준(독문 4.12) △이과대=고종길(물리 4.28) △법과대=이상은(법 4.01) △사과대=김봉근(행정 4.28) △경상대=임필

희(정보관리 4.14) △생자대=양봉숙(산림자원 4.27) △공과대=박범식(전자공 4.24) △사법대=신수경(역교 4.13) △예술대=정승수(미술 4.17) △야간강좌=서현주(광고 4.18) 등이다.

#### 경주캠

98학년도 경주캠퍼스 학위 수여식이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문무관서에서 치러진다.

이번 학위수여식과 관련해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평균 4.30을 얻은 법정대 황영숙(행정 4)양이, 전체차석은 평점평균 4.26을 얻은 한의대 이현이(한의 4)양에게 각각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이번에 전체수석을 차지한 황영숙양은 "뜻밖의 성과여서 열렬



완공...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근 1년동안의 공사를 마친 룸비니관이 오늘(22일) 개관한다. 학생식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아 기자

떨었지만 우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밖에도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를 보면 △불문대=장혜연(불교야동 4.22) △인문대=이성숙(중어중문 4.02) △자연대=류진향(화학 4.24) △법정대=조옥경

(행정 4.01) △상경대=이상일(관광경영 3.93) △한의대=한운정(한의 4.20) △의대=정취수(의 4.06) △야간강좌=이강희(법 4.18) 등이다.

## 본교 편입생 1천47명 선발

### 서울 영문 50.8:1 경주 의예 39:1

오늘(22일) 마감되는 편입학 전형에 서울 6백36명 경주4백11명 등 총 1천47명이 본교에 편입한다.

서울캠의 경우 99학년도 1학기 편입학 원서접수 결과 총 6백36명 모집에 9천1백57명이 지원해 평균 14.38: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분야별로 응시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편입학에는 2학년 2백89명, 3학년 1백91명, 학사편입에는 1백47명, 군위탁 편입에는 9명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 편입학 경쟁률은 일반 편

입의 경우 2학년이 지난 해 25.9:1에 비해 20.37:1, 3학년이 14.4:1에 비해 15.46:1, 학사편입 학은 2.2:1에서 2.16: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문과대 영어영문학 과로 50.8: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경주캠의 경우 지난달 29일에 99학년도 편입학 시험이 치러졌으며, 지난 18일 등록을 마감한 결과 5백 89명 모집정원에 4백 11명이 등록해 69.8%의 등록률을 보였다.

모집분야 별로 응시인원을 살펴보면 일반편입의 경우 4백 85명 모집에 1천1백27명, 학사편입은 1백 4명 모집에 1백76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일반편입 2학년이 지난해 2.71:1에서 2.09:1, 3학년이 2.22:1에서 1.07:1, 학사편입은 1.59:1에서 1.07: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응시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의예과의 경우, 학사편입과 일반편입을 포함한 모집정원 6명에 2백34명이 지원해 39: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총동, 동우장학금 전달

### 오는 25일 서울캠 교무위원회실에서

총동창회(회장=황명수)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캠퍼스 교무위원회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 학기로 8번째 실시되는 이번 수여식에서는 각 단과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재학생 32명(서울 캠퍼스 19명, 경주 캠퍼스 13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3천 2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이교은(불교3), 백현정(일문2), 최연주(영문2), 김기준(물리4), 최정주(법학2), 박은

정(사과계열2), 이정국(정외3), 조현정(경영2), 김상호(산림자원4), 진미옥(산림자원4), 차하나(응생3), 김소철(식공3), 양경아(컴공4), 정병민(산업시스템2), 김지선(수교3), 이승호(연영2), 최성운(영문3), 김현진(신방4), 김형우(토목공학 석사과정 1학기)

△경주캠=정석운(불교4), 강보영(의4), 주선희(관공4), 이세진(불교야동3), 김현우(철3), 이정임(수교3), 이희은(행정3), 오상운(회계3), 방소영(한외1), 김원주(의2), 황원주(전자계산3), 고종욱(한외1), 서주현(간호3).

## 고수동정

▲한태식(선학과)=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불교대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부심 초빙

▲임동희(사학)=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열리는 초청강연에 참가.

▲김상수(법학과)=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 중경연구회에 참석.

▲박인국(응용생물학)=지난달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본주쿠바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발표초청에 참가.

▲원치선(전자공학)=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MPEG-7 국제표준화 AD HOC Meeting 참석.

### 한총련 대의원 탈퇴 권유문 발송

## “학생운동 탄압에는 끝이 없다”

### 이해찬 장관 편지도 거센 반발... “진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7기 한총련 건설을 비롯한 학생운동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지난 2월초부터 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탈퇴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탈퇴하지 않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탈퇴 권유문을 대의원들의 부모님과 소속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유문에는 “한총련이 추종하는 북한의 체제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가 결합된 기형적인 전체주의 조직”이라고 전제한 뒤, “금년 3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그 이전의 범행사실에 대하여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총학생회 차원의 탈퇴 △총학생회 간부의 개별탈퇴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한총련 중앙조직원의 탈퇴 등의 한총련 탈퇴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번 권유문 발송은 지난 해 학생회 선거기간 발표되었던 검찰의 한총련대의원 검거 방침에 이은 것으로, 이에 대해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대학총학생회는 반박성 명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 등을 들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중(불교4)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현재의 대의원들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표자들인 만큼 정부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한총련 강제탈퇴 문제와 함께 현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글을 각 대학 신입생들에 보낼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편지글에는 학생운동을 삼가해 줄 것을 주내용으로 “일부 선배들은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며,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대학생의 특권이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부추기기

도 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가담한 사실로 받게되는 형사처벌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장관의 주장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 이번 일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회장=박경열·사학4) 또한 교육부에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한국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운동의 불미스러운 부분만을 문제 삼아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선배를 조소하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학생운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현 정부들이 학생운동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운동진영 또한 민중생존권 문제와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학생운동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우리사회내의 진보적인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대신신문 기획특집

##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동국을 나서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동대신문사

# 개봉박두! 동대신문이 3월1일자로 달라집니다

# 축사

# 98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치사



## 시련과 암울한 사회 현실 동국을 발판삼아 헤쳐나가길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졸업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범 일주년을 맞는 국민정부에서는 다각적인 개혁과 더불어 제2의 건국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여건은 결코 순조롭거나 낙관할 만한 현실이 아님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닥친 21세기를 주의깊게 응시하면서 이 시련과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개하고 국가적, 민족적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격동기에 정든 교정을 떠나서 현실사회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러나 험난한 시련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이제 개교 93주년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전 불교계와 동국가족의 성원에 힘입어 3백여원이 넘는 동국발전기금을 마련한바 있으며, 교육개혁 3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일산의 불교종합병원은 머지않아 그 설계를 마치고 착공단계에 이르는 등 실로 동국 중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졸업한 15만 동국인들은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배들이 이룩

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여 보람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만능과 도덕성이 상실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정화를 위한 불성의 향기와 여래의 참된 가르침이 단비처럼 아쉬운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불교적 인격 도야를 건학이념으로 실현한 동국의 졸업생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선봉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대망을 갖되 허욕과 집착을 삼가야 할 것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꿈과 이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오 녹 원 이사장



## 지식의 힘이 지배하는 21세기 개방된 사고·창조적 지력 발휘 필요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20세기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동국의 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앞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명명 세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모두가 새세기를 이끌어갈 빛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학과 정보문명사회가 될 21세기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지력과 개방된 사고력일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지식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지혜의 체득과 지비의 실천을 그 교육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인은 곧 나와 타인을 본래 하나의 생명으로 자각하는 자비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열린 정신은 모든 이념과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구화 시대의 대동운리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나와 전체를 이롭게 하는 자리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미래의 문명사회에서도 늘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샘이며, 우리의 생을 절대공경과 환희의 찬탄으로 넘치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용기있는 지성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졸업생 여러분을 모교의 품에서 떠나 보내는 자의 마음도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도전하는 자에게 역풍은 순풍으로 바뀔 것이며 거친 파도도 마침내 잔잔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나아하게 주저하는 자에게 거센 바람은 더 큰 좌절로 다가올 것입니다. 절망의 새로운 인식은 미래의 창조적 힘입니다.

그러므로 졸업생 여러분들은 새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실천자를 향해 과감하게 항해의 돛을 높이 올리십시오. 어떤 세찬 파도와 어려운 도전에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교에서 갈고 닦은 밝은 지성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현명한 방편으로 부단히 정진한다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푸른 이상을 실현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송 석 구 총장

### 소나기

#### 아~ 등록금

△ 등록금 삭감으로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 우리 부모님의 고통로 낸 등록금이 재단 이월적립되는 것을 반대한다.  
△ 어제 얼마까지 고심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 그동안 잘 알리지 않았나! 이젠 내릴 때도 되었건만.  
△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한 아픔해야한다.  
△애이리~c.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기쁘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학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수가 적은 것 같다.  
△돈없어 못배우겠다.  
△교과시절이 수업료도 싸고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등록하지 말고 도강만 합시다.  
△이제까지 등록금만큼 배운게 없어요. △대학! 너는 상아탑이고, 돈탑이고. △아버지 월급은 내렸는데 등록금은 동결. 이거 오른게 아닙니까? 이 상황에 동결만 하면 다나구요.  
△내가 대학하나 차리고 말지. △복지는 증진된게 없는 것 같은데 뭘그리 쓸데가 많은지.  
△불쌍한 이어 그대 이름은 '미등록' △나 휴학한다.  
△너 좋겠다. 나 그만 돌란다.  
△학생들에게 등록금받아서 또 이월적립하게요?  
△나 등록금 내고서라도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  
-취업못한 졸업생

###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송사

졸업은 언제나 기쁨이라고, 또다른 시작이라고 얘기들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펼치는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는데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졸업을 거부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무한경쟁과 힘의 논리가 절절되는 이 사회에서 미숙아처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할 선배님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까지 운운되고 있는 현실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기에 북돋아 주지 않는 청년의 힘으로 선배님들은 시대를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은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없는 자와 약한 자가 침묵만 했다면 역사는 진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배님께 1년 먼저 역사 진보라는 숙제를 맡기겠습니다.

남은 교복과 교과서는 아니지만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투쟁의 의지로, 온방골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후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시고 '동국대 경주캠퍼스'라는 말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것을 약속드립니다. 축하해도 될지 모르지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6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상섭(불교대 불교학과)



### 등록금 삭감·2월 적립금 환원해야

어느 날 학교로부터 날아온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어머니는 동결이라는 말에 힘없이 웃으면서 IMF인데 등록금이 내리지는 않다고 물었다.

1년 동안 대학이라는 곳을 다니며 내가 과연 학교로부터 수업료를 낸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았는가 생각해 봤다. 교수님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강의실에서 공나를 시루의 콩나물처럼 뿔뿔이 들어간 학생들과 마이크를 사용해도 들리지 않는 강의를 듣는 교양강좌,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전공 서적을 보러 해도 책이 없어서 자료를 찾지 못하는 도서관, 공강시간 친구들과 앉아 담소를 나누려고 해도 어디 한군데 휴식공간 하나 없는곳.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의 낭만이란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교를 다닌 것이라

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또한 학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497억이라는 이월적립금을 가지고 있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학교 예산의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익속에서 497억이라는 이월 적립금은 결국 우리가 낸 등록금을 적립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IMF로 어려워진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직의 위험속에서 직업전선에서 피땀 흘리고 계신다.

학교는 어려운 시대에 발맞춰 등록금을 삭감해야 하며, 이월적립금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신석철(문과대 국어국문학부)

### 민중이 핍박받는 시대를 고민하자

51년만의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김대중 정부가 취임 1주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경제난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해왔던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온 양심수들조차 준법서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감방안에 가둬두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대통령, 경제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허울 속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대가가 전 사회적으로 생산을 담당했던 노동자 민중들의 몫이란 말인가?

1999년, 대학을 떠도는 또 하나의 유명이 있다. 알하고 싶어도, 자격증이 많아도, 토익이 9백점이 넘어도, 취업이 안되는, 일자리가 없는, 그래서 떠도는 유명.

실업!!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기에 자본과 정권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생산의 주인인, 이방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들을 소외시키고, 소수 독점자본가와 재벌들에게만 집중되는 부, 그리고 이후 가속화될 재벌간의 빅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민중.  
우리는 다시금 1999년 한국사회에서 청년학생으로서 이 시대 진정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야 될 것들, 실천해야 할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박종근(문과대 영문(야))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사견,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 동약광장

#### 목격글

##### 축하합니다

△민규, 창수오빠 졸업 축하~! 출가해서도 선배는 선배죠.  
△화성오빠 졸업 축하해! 연구수 가서도 지금까지 밝게 살고, 그곳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빌게.  
△현민, 경선, 은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좀 지났지만 수예와 정강이 형의 500일을 축하합니다.  
△사범대 95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해요.  
△정외과 93 서풍석 오빠 생일 축하해요.  
-역교과 95 가시나가  
△우리의 영원한 '예측불허',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쉴

#### 열심히 합니다

△수교과 과·부과대님 힘내세요  
△보리야, 중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 -영  
△승중아! 군대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보다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구나.  
△스키부 부주장이 된 호이! 열심히 하구, 동급 최강 fighting!  
-J  
그리고...  
△불대 새터 갑니다. 새내기 여러분 재밌게 보내세요. 불교대 파이팅!!  
△사과대 새내기 여러분! '사과'처럼 상큼한 대학생활을 하세요.  
-나 98  
△1998년 3천 동아리인과 함께 했던 동아리 여러분! 졸업을(안타깝지만)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 잘 하세요!!  
-15대 동·연

△기린여러분, 방중에 봉사활동 하느라 수고했어요. 더욱 더 멋진 동아리가 되길.  
△현주야! 행복해~ O.T 잘다녀왔구나. 언제 밥이나 먹자.  
-너만의 수연

#### 동약장터

△컴퓨터 모니터 샀니다! 16인치 칼라. 2260-3616  
-신문사 일동

#### 온방글

△졸업 축하해, 수연아! 대학원가서도 잘 하라.  
-너만의 우니  
△운희야! 조교원칙 축하하고, 열심히 살아라.  
-J라

△태성이형, 재환이형, 인선이형 졸업 축하해요.  
-3월 14일날 사랑 사줄수 있는 돈으로 부모님 선물 하나 조그만한 것 사주세요.  
-어는 학우가

#### 열심히 합니다

△인찬아, 군대가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라. 독수리 5형제 쉬게하고 내가 지구를 지켜주길 바란다.  
-Y.W  
△운진아, 군대 잘 갔다 오나라! 휴가 나오면 술이나 한잔 하자.  
△졸업하시는 많은 선배님들! 힘내세요.  
△해경! 케익이랑 와인 사는 애인이라 잘 사귀고 있나? 퇴임해도 변한 것 하나 없단 얘기 잘 전해들었다.  
갈비집에서 일 열심히하고 음식 남는다고 절대 주먹안연 연다. 몸의 3겹을 들을 수 있게 노력 하길 바랍니다.  
-J라

#### 그리고...

△3월 14일날 사랑 사줄수 있는 돈으로 부모님 선물 하나 조그만한 것 사주세요.  
-어는 학우가  
△도서관 폴블렌 베스트 제 3위는 도서관이 자기집인양 친구이름 마구 외치는 학우. 제 2위는 도서관이 운동장인양 마구 뛰어 다니는 학우 제 1위 전화왔는데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여보세요'라고 외치면서 그것도 후다닥 뛰어다니는 학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를 조금만 생각합시다.  
△졸업하시는 많은 선배님들! 힘내세요.  
△해경! 케익이랑 와인 사는 애인이라 잘 사귀고 있나? 퇴임해도 변한 것 하나 없단 얘기 잘 전해들었다.  
갈비집에서 일 열심히하고 음식 남는다고 절대 주먹안연 연다. 몸의 3겹을 들을 수 있게 노력 하길 바랍니다.  
-J라

TEL: 2603491-2/  
(0561)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3.1절 특사, 특사 맞아? **논단**

# 조건없는 양심수 대사면 이뤄져야

정부는 대통령 취임 첫틀과 3.1절을 맞아 양심수에 대한 큰폭의 특별사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2천5백6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에 건의했고, 법무부는 27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을 준법서약없이 석방하는 내용의 양심수사면안을 대통령에 건의하여 재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지난 1월23일에 있었던 민가협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밝혔던 3·1절 양심수 사면 의지에 뒤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이와같은 비전향 장기수의 조건없는 석방건의는 마땅치않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의 석연치 않은 점과 지난해 3.13, 8.15 사면조치에서 대통령 사면의 의미를 훼손시켰던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밝혀두기로 한다.

장기수 21명 전원석방해야

먼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이른바 '장기수'라는 양심수에 붙여진 이름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민가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5년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

람을 장기 구금 양심수로 잠정규정하고 있었다. 정치적 사상적 확신과 정의·평화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가 구속된 양심수(확신수 또는 정치수)를 5년이상 구금하고 있는 예는 문명사회(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법무부나 국민회의에서는 29년이상 복역한 17명만을 말하고 있지만 22년을 복역하고 있는 조상록(54세)씨, 19년의 손성모(70세)씨, 15년의 신광수(71세)씨 15년의 강용주(38세)씨 등이 갇혀 있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민주화 운동을 한 조상록, 강용주씨는 오늘의 사법기준으로 본다면 집행유예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손성모 신광주씨는 70이 넘는 고령에다 고혈압,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병약자이며, 복에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 네사람은 지난 1988년 12월21일 양심수 대사면때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분류되어 석방되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비전향 장기수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석방조치는 뒤늦기는 했지만 50년을 이어나온 냉전과 공안 시대의 권력에서 이성과 보편의 세계로, 분단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일로의 다짐들로, 폭력과 억압의 아연에서 자유와 해방의 문명세계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명과 함께 이들 네 사람도 비전향 장기수라는 이름자체를 없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을 검사와 판사가 조건없는 구속취소로 모두 석방했으며 정치적 이유로 수배되었던 사람들을 조건없이 수배해제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사면의 의미는 이처럼 법의 판단을 넘어 국민화합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것이다. 특히 공안당국의 부당한 이적규정으로 구속되었거나 쫓기고 있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보리틀을 비롯한 정경유착 부정비리를 고발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조국사랑의 열당위성과 의지가 있다면 구태어 불필요한 조건을 두어 원래의 목적이 결렬되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사면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양심수 사면에서 기결·미결을 가리지 말고 양심수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미 1988년 12월21일 양심수 사면에서는 조사받거나 재판받은 사람들

## 사설

### 어려울 때 빛나는 우리가 되자

세월은 흘러 또다시 졸업의 시즌이 되었다. 졸업식이란 학교의 학사일정으로 보면 연례적으로 치르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를 뒤로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일구의 통과례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학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일종의 의무를 다하는 날로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날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졸업의 의미는 어떠한 간에 정든 교정을 떠나는 학생들 자신은 물론, 이들을 가르친 교직원들도 어느 해보다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1997년 말부터 밀어닥친 IMF의 한파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외선 타외선 간에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상징물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때,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졸업생들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36.1%로 예측되어 지난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인 58.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취업에 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잡았는가의 여부가 노동의 결과 생산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 최근 불경기의 여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년 2월의 실업률은 9.2%로서 작년 연말에 비해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한 셈이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약 200만명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셈이 되니, 실로 전국 이후 최대의 국난의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시적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한 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참아왔던 많은 고통의 결과, 지난해 말 세계 3대 신용 평가회사의 하나인 피치 IBCA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인 데 이어, 금년 초 미국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 & P) 및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도를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 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나라 사정이 이러한 때에 정든 교문을 나서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당부하고 싶다. 먼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선되어질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경제 주변상황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자기 전공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인이 입학했던 몇 년 전에 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본인의 전공에 맞춰 일자리를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전공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는 정부의 인력 수급 방향에 맞춰 대졸미취업자들에게 대한 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는 과거에 누렸던 모든 기록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 스스로는 물론 개인이 속한 집단도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학사복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학은 학제 편성상 최고의 학부이다. 따라서, 학제의 최종 단계를 이수하고, 심오한 학문을 음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일종의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일종의 권위의 표시이 바로 학사복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고, 우리 부모형제들의 정성어린 뒷받침이 있었으며,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그 스스로 위대한 것이다. 사회가 어렵고 개인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성적 판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 졸업생들의 앞날에 두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동국의 언덕에서 불태웠던 우리의 열정과 희망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주요 대학 등록금 삭감 투쟁

# “등록금 동결은 실질적 인상”

### 국가교육예산 확충 등 등록금의 재정보화 돼야

최근 몇몇 대학의 학생회와 각 대학당국 사이에 등록금 삭감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돼 관심이 되고 있다. 97년 말 IMF체제이후 가장정권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1백99개 대학의 99년도 등록금 현황 조사에 따르면 1백96개교 1백07개인 85.2%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난에 의한 국민 실질소득감소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원대를 비롯한 경희대, 한국대, 강남대, 영인대, 한양대, 아주대, 고려대를 비롯한 25개 대학이 참여해 지난 1월 8일 '등록금 삭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년학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 사안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인 조형

근 씨는 “등록금 삭감에 대한 여론 조성이 이번 연대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의 움직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약투쟁이란 방법이다. 이는 현재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자율납부이기 때문에 거부 가능하며, 기성회비를 제외한 단돈만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 기성회비가 근거 없는 징수로 확정된다면 결국 등록금 삭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에선 투쟁을 장기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으로서 파급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의 경우에도 총학생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교육환경 개선 △재단 전입금 확충에 의한 등록금 삭감 △국가교육재정확보 등을 외치며 등록금 삭감을 요구해 학교측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97년 등록금 5%인상, 98년과 99년 등록금 동결이 발표된 상황에서 학교당국과 학생회측 사이에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난 12일에 학교당국과 학생대표간의 1차 등록금 협상을 하



는 등 꾸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 예상되는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등록금 삭감에 있어 학교당국과의 줄다리기는 결국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많은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의 총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재단 전입금이 기타 수입이 부진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그 부담은 결국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단전입금을 비롯한 기타 수입이 증가되어야만 하며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재정확보라는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와 같이 교육 정도가 생존권에 직결되는 현실에서, 더욱이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결국 등록금 삭감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 재단전입금을 비롯한 기타수입과 국가차원의 지원을 늘려 학교예산에서 등록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춘)

# 독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 모니터 요원 모집 안내

-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각 4명
- △ 응시자격 : 동국인이거나 누구나 가능
- △ 제출서류 : 동대신문 한 호(1264호~1267호)를 읽고 모니터 작성
- △ 점 수 : 3월 15일~18일 오후 6시까지
- △ 제출처 : 본사 총무부
- △ 모니터요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

# 9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명단

# 동국의 이름을 빛낸

## 박사학위

▲박영기(철학박사)=허응당 보유 연구△55년생△성공관대 철학과 졸△95년~현재 분교 강사

▲정성준(철학박사)= '비밀집회판트라(Guhyasamaja-Tantra)'의 수행체계 연구△60년생△송실대 전신학과 졸△97년~현재 분교 강사

▲박재선(철학박사)=뇌허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56년생△문문승가대 대교과 졸△98년~현재 청통사 부주지겸 총무부장

▲심재운(문학박사)=중세 영국 중부지방의 농지 경작제 연구-미들랜드 개방농지제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및 성격에 관한 분석

▲조성운(문학박사)=일제하 영동지방 농민 운동 연구△64년생△분교 국사교육학과 졸△91년~현재 수원고 교사

▲이석주(철학박사)=허형(노제) 이학의 연구△65년생△분교 철학과 졸△97년~현재 창원대 강사

▲허남걸(문학박사)=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 연구-덕(virtue)의 공리성 문제를 중심으로△59년생△분교 국민문리학과 졸△93년~현재 분교 강사

▲허영주(교육학박사)=교육이론과 실천의 통합으로서의 교육적 '택트(tact)'의 성격△67년생△분교 교육학과 졸△97년~현재 분교 강사

▲위준현(법학박사)=경범죄처벌법상 범죄 유형에 관한 연구-다른 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28년생△서울대 역사과 졸△96년~현재 장항고 교장

▲김장식(법학박사)=미국법률협회의 '회사 운영원리: 분석과 권고' 상의 공정거래의무에 관한 연구△59년생△분교 법학과 졸△95년~현재 분교 계산고사학과 사감보

▲정수부(법학박사)=행정입법에 관한 연구△43년생△충남대 법경대학 졸

▲임광빈(정치학박사)=국제관계에 대한 세계정치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62년생△분교 정의과 졸△93년~현재 분교 강사

▲진희관(정치학박사)=조종현 연구-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66년생△분교 정의과 졸△97년~현재 (사)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경(정치학박사)=이언적의 정치사상 연구

▲이승준(행정학박사)=공공정책과정에서의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수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62년생△전북대 경제학과 졸

▲김수식(행정학박사)=한국 공기업복지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59년생△분교 정의과 졸△85년~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근무

▲심순(법학박사)=마약류범죄의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56년생△광동대 행정학과 졸

▲이성호(문학박사)=공업적 저발전 지역에서의 지역체계의 형성과 전환-전북의 산업·계급구조를 중심으로△60년생 △전북대 사회학과 졸△89년~현재 전북대 강사

▲김수복(경제학박사)=노동간 노동력 이동의 경제적 효과 분석△40년생△고려대 경제학과 졸△97년~현재 광주여대 겸임 교수

▲이정수(경영학박사)=한국 벤처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58년생△계명대 회계학과 졸△98년~현재 한백창업투자주식회사 재직

▲한윤경(경영학박사)=프로세스 혁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보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44년생△서울대 물리학과 졸△93년~현재 경원대 조교수

▲김용석(경영학박사)=직무특성과 고용관계 특성이 파견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49년생△서울대 정치학과 졸

▲김종태(경영학박사)=제조기업의 ABC 시스템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60년생△경북대 회계학과 졸△90년~현재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부 선임연구원

▲이태영(경제학박사)=쌀의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성제고에 관한 연구△59년생△고려대 농학과 졸△96년~현재 농촌진흥청연구위원 생산경제연구부 유휴연구원

▲한성실(이학박사)=다중 배타요인을 이용한 회귀모형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 검정에 관한 연구△68년생△분교 통계학과 졸△97년~현재 분교 강사

▲정기문(이학박사)=A Study on Optimal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of a Repairable System△69년생△분교 통계학과 졸△97년~현재 경원대 강사

▲안인(농학박사)=한국에 있어서의 유주자 균류에 의한 주요식물병방제를 위한 농약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연구△52년생△방송대 농학과 졸△96년~현재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농업사무원

▲김재영(이학박사)=Flavin과 Nicotinamide 조효소가 T4 파지 Thymidylate Synthase 유전자 Primary Transcripts의 Self-Splicing에 미치는 역할 효과△66년생△분교 농업생물학과 졸△92년~현재 분교 조교

▲김정숙(공학박사)=트리패턴매칭기법을 이용한 중간코드회화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59년생△광운대 전자계산학과 졸△96년~현재 분교 강사

▲윤신용(공학박사)=전류보상에 의한 미세 스텝으로 구동되는 LPM의 위치 추력 특성의 개선△64년생△서울산업대 전기공학과 졸△98년~현재 LG 토탈시스템 연구소 연구원

▲백경종(공학박사)=낙동강 하구 및 인접해안의 퇴적환경이 해성퇴적층의 공학적 특성에 미친 영향△56년생△연세대 토목공학과 졸△97년~현재 (주)한백기술 근무

▲홍병만(공학박사)=간척지반의 건조수축 및 압밀침하특성△51년생△서울대 농공학과 졸

▲김현태(공학박사)=스미어존내 투수성변화와 웰저항을 고려한 연직배수공법의 압밀해석△55년생△건국대 농공학과 졸

▲정상운(공학박사)=퍼지 다기준 위험평가 방법의 개발△63년생△분교 산업공학과 졸△98년~현재 수원과학대 조교수

▲정해은(가정학박사)=기독교인의 가정윤리의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57년생△한양대 가정학과 졸△92년~현재 오산대 조교수

▲임창수(한의학박사)=작약 약침 전처치가 산화억제에 미치는 영향△61년생△90년~현재 원광대 강사

▲이규현(한의학박사)=진무탕이 Gentamicin-유도 신독성에 미치는 영향△54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홍희탁(한의학박사)=Effects of Yukimijih-wangtang-Jahage Extracts on Cellular Regulation of Bone Cell and Function△59년생△경희대 한의과대 졸△98년~현재 홍희탁한의원

▲김미지(한의학박사)=보종익 기탕이 Lymphocyte와 CD4+ T cell에 미치는 영향△68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성현주(한의학박사)=체외수정과 관련한 육단주의 효능에 관한 연구△69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김희진(한의학박사)=A study on Anti-bone Resorption & Osteoporosis by Honghwan-Jahage Extracts△68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8년~현재 분교 강사

▲이동원(한의학박사)=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기저핵 변화에 미치는 양적산화환원의 효과△66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7년~현재 분간한방병원 임상연구원

▲이경애(한의학박사)=소독명당이 고지혈증, 전하허혈, 국소 뇌허혈, PC-12 세포독성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69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7년~현재 신사한의원 부원장

▲김길섭(한의학박사)=오공이 마우스의 면역방어의 및 2단계 발암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64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5년~현재 길한의원 근무

▲홍영옥(한의학박사)=이선탕·감맥대조탕·산조인탕이 Serotone, Melatonine의 변화와 백서의 행동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2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덕(한의학박사)=우울 및 불독약침이 생쥐의 LPS 유발관절염의 세포성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7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연(한의학박사)=삼출건비탕이 흰쥐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8년생△동덕여대 한의학과 졸

▲문상원(한의학박사)=신장조직에서 제조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56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정상운(의학박사)=Fentanyl과 Midazolam이 생쥐 체외수정과 배아발달에 미치는 영향△55년생△경북대 의과대 졸

▲양영일(의학박사)=만성B형 간염에서 HBcAg발현양상과 Basal Core Promoter 및 Precore 영역의 유전자 변이와의 관계△65년생△98년~현재 인제대 강사

▲박주태(의학박사)=용접법 생산 공장 근로자의 요통 발생빈도 및 위험요인에 관한 코호트 연구△47년생△가톨릭 의과대 졸

▲이일기(의학박사)=Expression of NMDA receptor Subunits and c-fos mRNAs in the Rat Hippocampal CA1 Region following Hypoxia△55년생△경북대 의과대 졸

## 석사학위

## 대학원

▲김규봉=선문정보의 견성관고찰

▲김영숙=원효의 열반종요에 나타난 회통 원리에 관한 연구

▲전운연=천태지의의 관음보살상 연구

▲박채숙=법장의 화엄성기사상 연구

▲임기영='아비달마집이론'의 법수체계 연구

▲차상엽=초기유식학과의 무분별지에 대한 연구-삼대승론을 중심으로

▲김부용=원효의 일승사상 연구

▲백옥수=무아의 연구

▲신병희=마조의 선사상 연구

▲원혜영=다라마카르파의 인식론에 대한 연구-Nyayabindu tika(정리일적류)를 중심으로

▲이정숙='자나' 학파의 상대론(syadvada)에 대한 연구-Syadvadamanjari를 중심으로

▲강민선=초기 불교 교단의 형성과 빈비사라(Bimbisara)의 역할

▲황정일=유부 십대지법과 유식 오편행·별경에 대한 연구-십대지법이 오편행·별경으로 나누어진 근거를 중심으로

▲최운정=인도 의미론에 대한 연구-어의의 전이를 중심으로

▲이필원=초기불전에 나타난 무기설 연구

▲홍기숙=창요의 특질과 내면구조 연구

▲염은영=강원 지역 가사의 연구-작품 배경과 자자 의식을 중심으로

▲김기중='월인천강지곡'의 배경과 구성방식 연구

▲구해수=고려민중가요의 문학사회학적 연구

▲원덕기=이기영 '고향'의 인물유형 연구

▲김숙이=국어 관형사 연구

▲김완서=16세기 문헌에 나타난 '느' 구개음화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계초삼학인문, 발심수행장, 불살대부모사경언해를 중심으로

▲김지영=폴라주 효과를 통해 본 샘 세퍼드 극 연구

▲김남교=Othello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박세정=해미웨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허미진=재구성 과 결속현상

▲정효진=일반대화원칙과 명시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강수정=정상정의 '본상방귀문' 연구-이류의 죽음을 중심으로

▲김은주=한국의 중부·동남·서남지방의 일분어 학습자의 발음에 관한 연구-일본 동경 방언과 비교하여

▲윤영수=조선 후기 산신탕화 연구

▲박소영=문목의 '석가여래행적' 연구

▲차은주=16~17세기 김진국의 정치·경제 연구

▲이경애(한의학박사)=소독명당이 고지혈증, 전하허혈, 국소 뇌허혈, PC-12 세포독성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69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7년~현재 신사한의원 부원장

▲김길섭(한의학박사)=오공이 마우스의 면역방어의 및 2단계 발암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64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5년~현재 길한의원 근무

▲홍영옥(한의학박사)=이선탕·감맥대조탕·산조인탕이 Serotone, Melatonine의 변화와 백서의 행동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2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덕(한의학박사)=우울 및 불독약침이 생쥐의 LPS 유발관절염의 세포성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7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연(한의학박사)=삼출건비탕이 흰쥐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8년생△동덕여대 한의학과 졸

▲문상원(한의학박사)=신장조직에서 제조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56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양영일(의학박사)=만성B형 간염에서 HBcAg발현양상과 Basal Core Promoter 및 Precore 영역의 유전자 변이와의 관계△65년생△98년~현재 인제대 강사

▲박주태(의학박사)=용접법 생산 공장 근로자의 요통 발생빈도 및 위험요인에 관한 코호트 연구△47년생△가톨릭 의과대 졸

▲이일기(의학박사)=Expression of NMDA receptor Subunits and c-fos mRNAs in the Rat Hippocampal CA1 Region following Hypoxia△55년생△경북대 의과대 졸

▲정정숙(공학박사)=트리패턴매칭기법을 이용한 중간코드회화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59년생△광운대 전자계산학과 졸△96년~현재 분교 강사

▲윤신용(공학박사)=전류보상에 의한 미세 스텝으로 구동되는 LPM의 위치 추력 특성의 개선△64년생△서울산업대 전기공학과 졸△98년~현재 LG 토탈시스템 연구소 연구원

▲백경종(공학박사)=낙동강 하구 및 인접해안의 퇴적환경이 해성퇴적층의 공학적 특성에 미친 영향△56년생△연세대 토목공학과 졸△97년~현재 (주)한백기술 근무

▲홍병만(공학박사)=간척지반의 건조수축 및 압밀침하특성△51년생△서울대 농공학과 졸

▲김현태(공학박사)=스미어존내 투수성변화와 웰저항을 고려한 연직배수공법의 압밀해석△55년생△건국대 농공학과 졸

▲정상운(공학박사)=퍼지 다기준 위험평가 방법의 개발△63년생△분교 산업공학과 졸△98년~현재 수원과학대 조교수

▲정해은(가정학박사)=기독교인의 가정윤리의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57년생△한양대 가정학과 졸△92년~현재 오산대 조교수

▲임창수(한의학박사)=작약 약침 전처치가 산화억제에 미치는 영향△61년생△90년~현재 원광대 강사

▲이규현(한의학박사)=진무탕이 Gentamicin-유도 신독성에 미치는 영향△54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홍희탁(한의학박사)=Effects of Yukimijih-wangtang-Jahage Extracts on Cellular Regulation of Bone Cell and Function△59년생△경희대 한의과대 졸△98년~현재 홍희탁한의원

▲김미지(한의학박사)=보종익 기탕이 Lymphocyte와 CD4+ T cell에 미치는 영향△68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성현주(한의학박사)=체외수정과 관련한 육단주의 효능에 관한 연구△69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김희진(한의학박사)=A study on Anti-bone Resorption & Osteoporosis by Honghwan-Jahage Extracts△68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8년~현재 분교 강사

▲이동원(한의학박사)=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기저핵 변화에 미치는 양적산화환원의 효과△66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7년~현재 분간한방병원 임상연구원

▲이경애(한의학박사)=소독명당이 고지혈증, 전하허혈, 국소 뇌허혈, PC-12 세포독성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69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7년~현재 신사한의원 부원장

▲김길섭(한의학박사)=오공이 마우스의 면역방어의 및 2단계 발암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64년생△분교 한의과대 졸△95년~현재 길한의원 근무

▲홍영옥(한의학박사)=이선탕·감맥대조탕·산조인탕이 Serotone, Melatonine의 변화와 백서의 행동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2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덕(한의학박사)=우울 및 불독약침이 생쥐의 LPS 유발관절염의 세포성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7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이승연(한의학박사)=삼출건비탕이 흰쥐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68년생△동덕여대 한의학과 졸

▲문상원(한의학박사)=신장조직에서 제조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56년생△분교 한의과대 졸

▲양영일(의학박사)=만성B형 간염에서 HBcAg발현양상과 Basal Core Promoter 및 Precore 영역의 유전자 변이와의 관계△65년생△98년~현재 인제대 강사

▲박주태(의학박사)=용접법 생산 공장 근로자의 요통 발생빈도 및 위험요인에 관한 코호트 연구△47년생△가톨릭 의과대 졸

▲이일기(의학박사)=Expression of NMDA receptor Subunits and c-fos mRNAs in the Rat Hippocampal CA1 Region following Hypoxia△55년생△경북대 의과대 졸

 박 영 기	 정 성 준	 박 제 선	 심 재 윤	 조 성 운	 이 석 주
 진 희 관	 이 승 준	 김 수 식	 심 순	 이 성 호	 김 수 복
 정 기 문	 안 인	 김 재 영	 김 정 숙	 윤 신 용	 백 경 종
 홍 희 탁	 김 미 지	 성 연 수	 김 희 진	 이 동 원	 이 경 애
 ▲박범석=삼봉의 성리학 불교비판과 그 교육적 의의	 ▲전찬명=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일 고찰	 ▲Park Ja-hyun=형법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Jeon Hyun-yeon=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Seo Sang-yeon=주주대표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Park Jae-hyun=합동법인의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Seo Sun-yeon=소규모 산업집적지역의 형성과 기업연계에 관한 연구-서울 양재·포이지역의 전자·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Lee Hyun-yong=Asymptotic Behavior of Powers of Ideals	 ▲Jo Do-yeon=A Study on some Properties of Locales and Boolean Locales	 ▲Min Byeong-rae=Stability of constant mean curvatures spheres in Euclidean space	 ▲Bang Gyeong-hwa=Applications of Choquet integral representation theorem	 ▲Lee Ho-seung=Ni/SiC와 Ti/SiC Schottky 다이오드의 제작과 전기적 특성 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Jeon Hee-yeon=정수론의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개방형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회귀 상수의 결정에 관한 연구

▲송민석=베이지스 정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모형에 관한 연구

▲안창호=단변량 밀도함수 추정에서 기존의 여러 커널 밀도 추정량들의 유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석호=정규혼합분포의 베이지안 추정법과 커널 밀도함수 추정법에 관한 비교 연구

▲최우철=시판 가공차와 약용식물의 탄닌 함량 측정

▲이주승=Hop의 poly-phenol성 물질의 추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정명준=N-Chlorocarbonylmethyl에 의한 제지용 섬유용 습윤강도 향상 효과

▲조은희=한국 DMD/BMD 환자가 있는 가계의 보인자 검색을 위한 연관분석

▲이현민=남산 매미나방(Lepidoptera: Lymantriidae)의 계절적 발생소장과 성체로보에 의한 예찰 연구

▲박윤경=Solanum commersonii에서 도입된 감자의 풋마름병 저항성 표지인자의 추적과 야생생종에서 역병저항성 개체의 선발에 관한 연구

▲권대철=한국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인공지에 관한 연구

▲윤근오=이온층 기관에 기초한 DSA Translucent Cryptography 프로토콜

▲배진석=패치에 슬롯이 있는 2중 주파수 인터러나의 FDTD에 의한 해석

▲김성일=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MPEG-2 비트스트림의 드랜스코딩과 저작권 보호

▲장영태=FCM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통신 채널 분류

▲송기성=클러스터링을 이용한 RBF 등화기에 관한 연구

▲임재혁=블록단위 영상분할을 이용한 객체추적 및 형태학적 영상분할과의 비교 연구

▲정성곤=SKIP 프로토콜의 보안성능 개선

▲나인엽=MPEG-2 비디오의 장면전환 검출과 브라우닝에 대한 연구

▲박성현=Escrow 전자 현금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안성순=Viterbi 복호기의 속도 개선을 위한 신경망 ACS

▲안태길=적응 양자화에 의한 Viterbi 복호

▲황정수=압축된 비디오데이터의 채널전송에 대한 결함 및 보상 알고리즘

▲이정훈=단일 뉴런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자동 동조 시스템

# 영광스런 얼굴들

# 석사 : 4백38명, 박사 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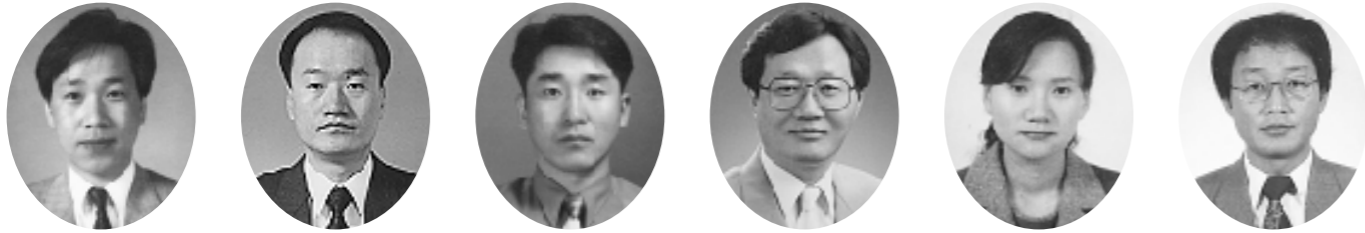
허남결 허영주 위준혁 김장식 정수부 임광빈



이정수 한윤경 김용석 김종태 이태영 한성실



홍병만 김현태 정상윤 정해은 임창수 이규현



김길섭 홍영욱 이승덕 문상원 이승연 정상윤



이 일 기

▲신행렬=C++ 언어를 위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도구의 설계 및 구현  
▲모수정=멀티캐스트 환경에서 RTP/RTCP를 위한 확장성 있는 피드백 제어 기법  
▲유병인=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무선링크 상태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TCP 성능 향상  
▲박은영=비교할 특징점의 제한을 통한 지문 인식 시스템의 성능 개선  
▲고민수=적응적 수신자 기반 계층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유영우=대규모 분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이동 에이전트 이동기법 연구  
▲윤성덕=음성회의 시스템에서의 적응적 에러복구기법  
▲김태규=소프트웨어 분산 공유메모리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일관성 모델  
▲한정기=적합성 피드백에 의한 지능형 웹 에이전트의 프로파일 학습  
▲정해성=Expect를 이용한 원격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  
▲조은정=CORBA 환경에서 역할-기반 접근 제어 기법을 이용한 보안정책 관리  
▲황은희=자바 실행 환경에서 SPARC 실행 환경으로의 이전 방법  
▲박현남=조명의 영향을 최소화한 얼굴 인식 기법 연구  
▲김경자=대리인에 의한 캐시 일관성 유지 방식에서의 클라이언트들간의 상호 협조  
▲이상우=새로운 히스테리시스 제어방식의 고역률 단상 AC/DC 컨버터의 설계  
▲고승모=동기정류방식을 이용한 고효율 하프 브리지 컨버터에 관한 연구  
▲배성식=계기용 LDM의 설계, 제작 및 특성 해석에 관한 연구  
▲정헌준=가동자석형 LDM의 추력보상 및 다극화에 관한 연구  
▲최병인=BLDC 모터의 모델링 및 접속도 운전 특성의 개선  
▲최두성=4상과 5상 하이브리드형 스텝모터의 모델링 및 디텐드 특성 해석  
▲류중삼=유한 요소법에 의한 가동로일형 LDM의 추력중성 산정 및 설계방법  
▲문기석=CH4 가스의 전자평균에너지 및 전자에너지 분포함수 해석  
▲안도량=블록FFT에 기초한 에지검출을 이용한 적응적 영상복원 알고리즘  
▲김용운=트러스교의 응답스펙트럼 해석  
▲이민형=수위변동에 따른 Rockfill 댐의 거동 및 균열원인에 대한 평가  
▲박은석=삼축 시험기를 이용한 불포화토

의 함수특성 및 투수계수 결정에 관한 연구  
▲김재필=선행입찰하중 결정방법에 관한 비교 및 분석  
▲조유주=저투수성 중강복토재가 포설된 폐기물 매립지내의 침출수 흐름  
▲이광민=천연 마섬유를 이용한 필터재의 투수특성에 관한 연구  
▲김학민=지하수 수질관측망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이성도=콘크리트 충전 각경강관기둥-H형강보 골조의 접합부 형식에 따른 내력  
▲박성진=각주입면구성의 바법에 의한 동적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공력탄성모형을 이용한  
▲김태영=중심 압축력을 받는 냉간성형 C형강의 후좌굴강도  
▲안동훈=주상복합건축물의 계획 특성에 관한 고찰-1990년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영=도시발전이 따른 가로축의 변화에 관한 연구-광주시를 중심으로  
▲조남두=회합경을 통해 본 회합사찰의 배치형식 연구-회합심찰을 중심으로  
▲유성필=Polyetherimide 중공사막의 기체투과 특성에 관한 연구  
▲송정식=IPA 공비중류공정의 상평형 데이터 측정 및 기본 설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현걸=다품종 분산공정에서 중간저장조 위치를 고려한 최적설계  
▲이민호=회분식 중류공정의 운용전략에 따른 최적 환류비 모델 개발  
▲황은희=자바 실행 환경에서 SPARC 실행 환경으로의 이전 방법  
▲손종호=실리카 에어로젤의 합성 및 물적 특성의 규명  
▲손종석=부상부유법에 의한 탈묵공정에서 계면활성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송주호=수계 아크릴 접착제 제조를 위한 에멀전 중합에서의 계면활성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애=고추의 생육 중 카로티노이드 조성의 변화와 항산화력의 관계  
▲정순규=튀김과정중 극산화합물 및 변형지방산 조성의 변화  
▲신재욱=Streptococcus faecalis K1 12에 의한 10-Hydroxyoctanoic acid의 생성조건  
▲김종희=한국인의 식품 중 트란스 지방산의 함량과 섭취량 추정  
▲이환경=DRP시스템에서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고려한 통합 발주계획  
▲신장희=삼각 다면체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인 공구경로 생성  
▲여한규=PERT/CPM에서의 프로젝트 완료 시간 예측과 주경로 파악 및 통제를 위한 퍼지기법의 응용  
▲정재호=NURBS 곡면의 효율적인 삼각화 알고리즘 개발  
▲이승현=STEP AP203 형상정보의 가시화 및 수정 시스템 개발

▲김미란=베이지 학습을 이용한 문헌자동 분류시스템의 설계  
▲김미영=Z 클래스 스키마를 통한 객체 지향 모델의 유도  
▲박인숙=부분 순서 계획을 생성하는 혼합형 에이전트의 설계 및 구현  
▲박희승=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신동훈=위점막 보호효과에 대한 산사의 항산화작용과 SH기 역할  
▲손치수=경락체계의 원리론에 대한 연구  
▲최효정=갈근의 항산화작용에 의한 위점막보호 효과와 내인성 Sulfhydryl 화합물의 영향  
▲김지권='난경' 제철심오산을 중심으로한 금원사대가의 화원론에 대한 문헌적 연구  
▲박시흥=인삼의 배합에 따른 항산화작용에 관한 연구  
▲권중훈=치주출혈이 DNCB로 유도된 생쥐의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김세운=A Study on the Effect of Jindangwon on th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es in Mouse  
▲정주화=보두감초말 추출물이 흰쥐의 소화성장애에 미치는 영향  
▲정병운=페렴 유발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이상정=황정 추출물이 흰쥐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NOS 활성 및 Nitrite 함량에 미치는 영향  
▲박인영=항생제 내성 화농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김현아=탄약을 이용한 항암 실험연구의 경향에 관한 고찰  
▲김수성=인진경탕의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 바이러스 효과  
▲정영호=가미활탕의 항염이 및 면역증진에 관한 연구  
▲박태훈=제조가 허혈/재관류에 의한 뇌손상에 미치는 영향  
▲양기중=사충혈에 관한 연구  
▲신상일=금음와 약침이 세포독성과 LPS 유발 관절염의 II-1 $\beta$  억제에 미치는 영향  
▲이정훈=마왕피 출토 의서중 죽비 십일맥 구경에 대한 연구  
▲이수홍='침구대성·사책'의 번역과 분석을 통한 양계주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반재완=제조로부터 정제된 혈전용해효소의 효능에 관한 연구-분자량 30,000 dalton을 중심으로  
▲이윤정=반지련이 자궁암세포(Hela22918)의 성장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진우=반지련이 난소암세포(SUN-251)의 성장억제에 미치는 영향  
▲윤병국=오수유당이 cholesterol이 식이 생쥐의 SOD 유전자발현능에 미치는 영향  
▲김한규=신수혈의 침차과 황기약침이 생쥐의 면역활성물질인 TNF- $\alpha$ 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효정=한방 스포츠음료 개발을 위한 4

개 처방의 영양학적 비교연구-보종익기당·쌍화당·생맥산·유미지황탕  
▲최은규=용뇌향이 mouse에서의 항경련 효과  
▲서완다=Helicobacter pylori 제균이 위장 점막의 세포증식능과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이호현=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24시간 활동 혈압과 혈장 K의 연관성  
▲박동진=고립성 폐 결절의 임상적 고찰  
▲구정태=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이완기 기능과 24시간 활동 혈압의 연관성  
▲정호근=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소절개 담낭절제술의 비교분석  
▲장혁준=전립선암에서 TGF- $\beta$ 1, TGF- $\beta$ 2 발현과 Ki-67표지자수의 비교 분석  
▲전상진=해마 CA1과 CA3 지역에서 P53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사망기전  
▲이준호=무수프탈산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연구  
▲이윤지=건강관련 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조종훈=복합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발진성질환에 조기진단을 위한 신경전도검사의 유용성  
▲배근량=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에서 진단된 암등록 환자의 특성과 직업 관련성  
▲김나연=신생아 뇌에서 중등도 저산소증 증후군 AMPA수용체의 분포와 발현  
▲장준혁=신생아 뇌에서 중등도 저산소증 증후군 Kainate수용체 아단위의 분포와 발현  
▲김은영=위점막에서 가스틴 분비세포와 CD99 발현세포의 출현 양상  
▲안승원=척추마취시 수액의 가온, 감각차단의 높이 및 피부온도가 마취후 전열에 미치는 영향  
▲방장식=분절형 백반증과 비분절형 백반증의 임상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  
▲범영택=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자동차 시트프레임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조정형=전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황산구리수용액의 농도측정  
▲김철식=유한요소법을 이용한 longneck-flange의 단조성형의 공정설계  
▲신태식=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능동진동제어  
▲정지운=가상현실을 이용한 압축시험에 관한 연구  
▲한동천=겨울방사선이 있는 직사각형계의 전도도 복사열전달  
▲김봉철=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부식피로균열 성장거동에 관한 연구  
▲김규백=Chlorosulfonated Polyethylene의 난연성 및 내방사선성 향상에 관한 연구

## 불교대학원

▲김정식=불교 포교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 연구  
▲조영찬=원효의 여래장사상 연구-대승기신론·열기'를 중심으로  
▲박성수=현대 한국불교 승가교육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박효열=조선 후기 칠성도 비교연구-전라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양식비교를 중심으로  
▲신강수=청소년의 복지목욕과 불교의 복지 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박은아=조계종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대학원

▲임학규=대한불교조계종 재무행정체제의 발전방향-중앙종무기관의 예산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유병훈=지방공무원 사기에 관한 연구-경기도내 시·군 하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김대준=환경규제정책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팔당호수질개선을 중심으로  
▲김봉호=지방재정전담제의 활용방안  
▲서옥원=군정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육군을 중심으로  
▲곽영운=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윤종성=군 리더십에 있어서 절차공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창환=전원형 신도시 개발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계룡 신도시를 중심으로  
▲김광성=북한사회에 있어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북한의 방송과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황용호=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제 15대 국회를 중심으로  
▲강정원=군 관련 언론보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노종성=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환경보전의지에 관하여  
▲조석희=군 환경교육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군 교육기관 및 사단급 부대를 중심으로  
▲홍준성=미래전 대비 신세대 병사의 지휘통솔 발전방향  
▲장동문=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병관=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에 관한 연구  
▲한상훈=한국군의 군구조 발전방안 연구-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주성일=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장정호=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환=북·미관계 개선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부=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최창익=남·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규=통일후 국내 은행의 북한지역 직접개설에 관한 연구-통일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  
▲송정환=고속도로 순찰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성=비행소년의 처리과정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규=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우=한국인 해외근무자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신변안전과 테러를 중심으로  
▲서정환=세계 요인테러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송정환=고속도로 순찰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은옥=한국교회의 사회복지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해경=우리나라의 기아발생과 사회보호 현황  
▲이재구=소규모기업 근로청소년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서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종애=주부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미숙=유년지역 청소년 문제의 특성과 대처방안 연구-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전인수=기업연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나영희=방과 후 아동보호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1, 2학년  
▲장화영=고등학교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이미숙=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박효서=북한문화의 특성과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방안 연구  
▲신홍진=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최재일=남·북한 관광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계식=김정일 정권의 통일정책 변화요인 연구  
▲이상석=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박재석=동북아지역 신안보환경 형성에 따른 한국 안보의교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재규=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영대학원

▲성민우=전자문서교환(EDI)의 통관업무 자동화에 관한 연구  
▲이규준=자유출·퇴근제가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이정연=구조적 관성의 조직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한국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김신=과경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여성화물 공업단지 사업체들의 과경근로자 현황을 중심으로  
▲이상연=금융기관 종업원의 인사관리와 보상에 관한 연구-국내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

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장희=조직내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인간관계와 직무관계를 중심으로  
▲이종규=수리부품 보급수준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송향=백화점 여성의류의 패션마케팅에 관한 연구  
▲임희택=우리나라 대학생의 청바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Life style을 중심으로  
▲최은석=우리나라 음반업계의 마켓팅에 관한 연구-가요음반 제작에 있어서 국내제작사와 외국제작사의 비교를 통해  
▲박건용=항공사 상용고객우대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아름=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홍보 메시지 유형에 관한 연구  
▲양천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마케팅, R&D, 생산 부문의 통합을 중심으로  
▲문경용=전자상거래의 소비자 위험 인지도에 관한 연구-인터넷 쇼핑 구매결정 및 위험지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최병수=은행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제공자와 고객간의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김종훈=부모의 라이프스타일과 아동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미정=사업주의 고객지향성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컴퓨터·통신 매장을 중심으로  
▲오국영=주택저당채권 유통과 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부호=한국주택은행의 영업부분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이소영=IMF 관리체제의 중소기업부도의 요인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철=탐계 도입과 증권관리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박종도=우리나라 병원회계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조용래=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 효과 연구  
▲박상수=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수=통신서비스의 통합 DB 마케팅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우종식=국내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동정=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박인숙=주택저당채권 유통제도에 관한 연구  
▲하은아=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일산 신도시 사례 중심으로  
▲민환기=민자역사 개발전망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인천지역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이종연=우리나라 건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오피스 건물의 관리인원을 중심으로

## 교육대학원

▲정재천=한국 초·중등 교원근무여건의 국제적 위상  
▲구능모=공·사립 인문계 고등학교 조직종도 비교  
▲한금순=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분석  
▲류남순=기초 여교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  
▲김진규=초·중등 교원의 명예 퇴직에 관한 분석적 연구  
▲장명순=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이부순=중학교 주관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인식분석  
▲오현옥=불교신자의 신앙생활에서의 갈등 유형 조사 연구-평택지역을 중심으로  
▲김명숙=중학생의 독서습관과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  
▲최귀화=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의 관계연구  
▲정호숙=부모의 교육적 태도와 시험불안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이명호=유아미술 감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홍정미=불교 어린이집의 종일반 교육 프로그램 모형  
▲원향란=유아조형 활동이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심현미=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자유표현 특성과의 관계  
▲윤미정=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은=2~3세 유아의 프로젝트 접근법

퇴임교수 인터뷰

교정을 떠나시는 교수님들께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길용(사학), 김인제(경제학), 김홍배(식학) 교수님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사를 실지 못합니다.

글은 단과대 순으로 실습니다.

편집자주

# 당신의 발자취는 영원하리라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김인홍 교수

“몸은 떠나도 내 마음의 고향은 동국이지”

## 동국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

2월 19일 퇴임식을 마친 후 느린 걸음으로 학교 교정을 둘러보고 있는 김교수와 어렵지 않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35년 동안 동국의 제도와 관행 속에 묶여 있다가 해방된 기분이야”라며 퇴임소감을 밝히는 그의 표정 속에는 흥분함보다 섭섭함이 진하게 배어있었다.

김교수는 1933년에 태어나 해방기의 혼란과 민족 동란을 겪으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전쟁의 공포는 한민족 뿐만이 아닌 전 인류의 비극이라고 여겼기에 국제평화를 위한 기구설립과 제도정립 분야를 깊이있게 연구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은 수 편의 논문 속에 정리되어 있지만 김교수는 무엇보다 국제관계학의 후진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퇴임 이후에도 대학원 강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열에 대한 세간의 칭찬을 “교수는 교육자이자 학자라네.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에 혼신을 다 해야지”라며 일축하는 강직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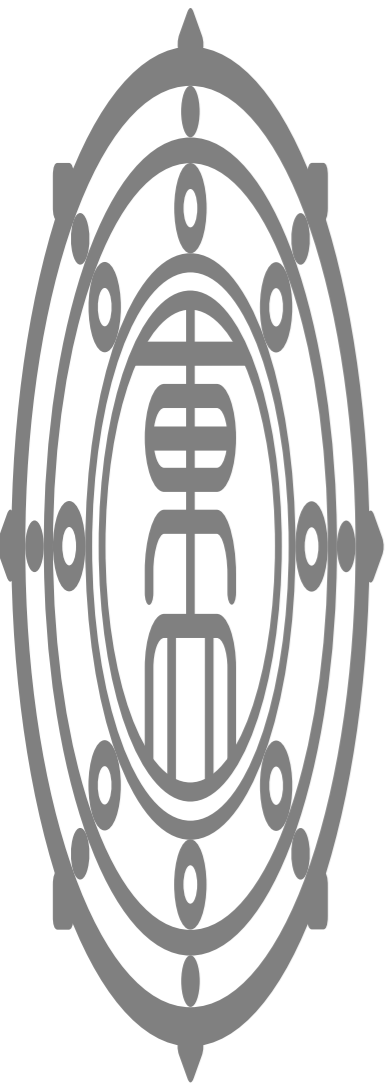
“50년대 초반 대학 재학 시절은 시대적으로 참 암담했지. 그렇지만 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풍요로웠어”라며 현시대의 대학생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위화감 때문에 연대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경제난으로 인해 취업문이

좁아지자 대학이 취업 준비를 위한 곳으로 전락해 대학문화가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졸업하는 제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김교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제자들은 청년정신으로 역경을 딛고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해 질거라 믿고 있네”라며 이들에게 눈앞의 위기에 굴하지 말고 인생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서정주 시인의 글귀처럼 몸은 떠나도 내 마음의 고향은 동국이지.”라는 말을 남기며 김교수는 63년 3월에 처음 올랐던 동악로를 따라 천천히 교정을 나갔다.

이미숙 기자



사범대 지리교육과 형기주 교수

“벌써 2년전부터 ‘노는’ 준비를 했지”

## 보수적인 동국의 모습 아쉬워

현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각종 ‘준비된~’을 만들어 낼 만큼 크게 유행했다. 말한 이와 듣는 이 사이에 믿음마저 생성하는 힘을 가진 ‘준비된~’이라는 수식어는 말한 이의 ‘노긋함’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 ‘준비된 퇴임교수님’이 있다. 35년 동안 쥐고 있던 분필과 생이별을 하는데 인터뷰 내내 여유를 잃지 않은 형기주 교수의 ‘노긋함’의 비결은 바로 ‘준비’였

던 것이다.

“어떤 선생은 퇴임을 앞두고 쇼크를 받는다고 하더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벌써 2년 전부터 ‘노는’ 준비를 했거든.”

이제 ‘동국’에 그의 자리는 없어지지만 열심히 ‘노는’ 준비를 해온 덕에 형교수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바쁘다. 한국 경제지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신이 설립한 ‘한국 산업입지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연구활동과 학회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젊잖아. 앞으로 10년은 거뜰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야.”

아직 ‘젊은’ 형교수가 분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70년, 분교 지리교육과가 창설되던 해이다. 4반세기 이상 동국에 몸담았기에 누구보다 ‘동국’을 잘 아는 그는 서슴치 않고 ‘동국’에 체적을 가한 다. “전반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지, 새로운

것을 용인하는데 인색하지. 예전에 비해 보수적인 색채가 짙긴 했지만 학교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이 보수적인 틀을 깨야 해”라며 교수, 학생, 직원 모두 애교심을 갖고 이 보수적인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봉사동아리 EIT를 창립해 학생들과 농촌봉사활동 하던 일이 가장 보람됐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답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데...”라며 가장 즐거웠던 기억도, 가장 보람됐던 기억도 모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라는 형교수는 씩씩하게 말꼬리를 흐린다. ‘노는’ 준비를 무려 2년 동안 해왔지만 형기주 교수에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다.

김미경 기자



인문대 한문학과 배상현 교수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배움을 주겠네”

## 정신적 스승으로 남고 싶다

“학생은 배움에 싫증을 느끼지 않고, 스승은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그 본분을 다한 것이지.”

스승과 제자가 제할 도리를 다한다면 그이상 진실한 것이 없다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 배상현 교수.

경주캠퍼스의 한문학자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18년간 줄곧 한길 만을 달려와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가 온 길에 대해 일

말의 후회도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이루었네. 모든 즐거움과 성취도는 내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없다네!”라는 말에서 배교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육십시대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좌절하지 않고 사는 길이야”라며 살아가는 지혜도 잊지 않는다.

경주에서 제일 한문 잘하는 학생보다는 한문학하면서 사람되었다는 말을 더 듣고

싶었다는 배교수. “한문학을 공부하면 동양철학의 유교, 불교, 도교의 3종교를 모두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데 문학, 예술 모두 철학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지. 그런 면에서 한문학은 기본적인 바탕의 한 부분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네.”

그런데 한문학을 육성시킬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턱없이 부족해”라며 30년 한문학의 연구를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을 지적한다.

그는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제자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다져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적인 것은 정적인 것에서 발견 되는 것이며, 정적인 것 또한 동적인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붓글씨 동아리인 ‘동묵회’의 지도교수로 18년동안 줄곧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기반을 다져주고 학생들에게 가까운 스승이 되고자 헌혈을 원하는 보직을 마다했다. 또한 인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서대회’를 주최하여 학교 홍보에 기여하기도 했다.

퇴임후에는 어떻게 지내겠다는 질문에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든지 배움을 주겠네”라고 대답하는 배교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승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인>

### 의 전개과정 및 교사의 역할 (6면으로)

- ▲김해경=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 ▲김학량=우리말 고유어 교육에 관한 연구-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체언을 중심으로
- ▲박미선='홍길동전'에 나타난 작가 정신
- ▲이미정='금오신화'에 나타난 남녀 주인공의 현실인식 연구-애정관을 중심으로
- ▲김광섭=서사텍스트와 논술텍스트를 연계시킨 쓰기 지도 방안 연구-서사문학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 ▲권혁범=교통발달에 따른 원주지역의 변화
- ▲서종일=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지도안에 관한 연구
- ▲박종민=협동 학습모형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학 학습지도 방안-농촌지역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 ▲김영선=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수학과 중심으로
- ▲박민영=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변형지도에 관한 연구
- ▲장정훈=퇴계이황의 교육사상 연구
- ▲김정현=공자의 효사상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 ▲박두산=순자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 ▲최유신=장자의 자연적 인간관에 관한 연구
- ▲함명수=회화에 있어서 재현과 표현이 중층적 작용에 관한 연구
- ▲김병균=미술교육 평가의 개선에 대한 고찰-중등학교 미술을 중심으로
- ▲이양석=자연을 소재로 한 형상표현-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표옥선=전통문양교육을 통한 디자인 능

### 력 신장

- ▲김동석=고양 이용노의 작품 연구
- ▲이근우=우리나라 암각화의 표현 형식 및 그 내용에 관한 연구-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중심으로
- ▲한상태=대구·경북학단의 서양화 연구-1920년~1930년대를 중심으로
- ▲한무권=문자의 획을 이용한 철조제작의 실제
- ▲이지락=회화의 사상과 시세계
- ▲이용훈=수영코우치의 리더십 유형별 선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정금식=사회복지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관 사회체육시설 중심으로
- ▲홍재익=고구려 시대 불교사상이 무사체육에 미친 영향
- ▲이명숙=청소년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 ▲안병규=골프 운동자의 기술 수행시 상해 빈도에 관한 조사 연구
- ▲박상혁=해빙웨이 작품에 나타난 애정관
- ▲윤영신=Robert Browning의 극적 독백적 연구-화자와 청자의 관계
- ▲이명환=해빙웨이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 ▲박후서=Studies on tuber characteristics and glycoalkaloid analysis method determination with Hplc in the progenies and fusion hybrids of S.tuberosum haploid and S.commersonii
- ▲서정인=기계자수와 전통 수자수의 비교 연구
- ▲김양희=한국인의 민속주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전미이=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가 의류제품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 ▲이아리=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한 초등 4학년 2학기 수학교과과정중 평면도형에 관한 CAI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 ▲한정철=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한 windows95 학습용 타이틀의 제작 연구
- ▲김해욱=사용자 관심도에 의한 메일 에이전트
- ▲황선홍=중학교 컴퓨터 교육 개선방안
- ▲송선개=석전 박한영의 불교개혁에 관한 연구
- ▲김동혁=미군정에 교육과 종교의 상관성 연구-인물,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 ▲이정원=현대 중국어 연사 연구

### 언론정보대학원

- ▲하정호=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국방 정보체계 구조기반 모형에 관한 연구
- ▲한명숙=글로벌 경영을 위한 효과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K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삼미=한·일 공공기관의 소비자 정보 제공과 두나라 주부소비자의 소비자정보 수집과 활용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
- ▲문진선=국내 PC통신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 및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박용수=전자통합청구제도 이용의지에 관한 연구-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 ▲유은근=MIS전문인력의 직무와 경력지향에 따른 필요 직무능력요소들의 중요성 인식도에 관한 연구
- ▲강건석=해의제작 영상물의 수입과 유통구조에 대한 고찰-월드지니 제작 애니메이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 ▲김벽수='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평가집단별 태도조사 결과를 중

- 심으로
- ▲현정주=TV문화예술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실태에 관한 연구-지상파 방송 3사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 ▲김용민=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직파 TV방송사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최창섭=방송언어 오용실태에 관한 연구-시청자 태도를 중심으로
- ▲한인숙=언론에 의한 정치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 ▲박창수=우리나라 잡지 프리랜서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취재 부문을 중심으로
- ▲최재영=중·소 서점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 ▲김진섭=웹진의 정의와 전망에 관한 연구-웹진의 정의, 종이 잡지와 비교, 발달 전망
- ▲전민철=전자 출판물의 저작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우리 나라 전자 출판물 복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김병세=800 MHz 대역 실내 전파전파의 해석
- ▲윤준호='비언어적 카피'에 관한 연구-베네트, 엠솔루트, 스키노프 광고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강신도=스포츠 스폰서십을 이용한 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종운=광고 대상에 관한 연구-대한민국 광고대상 TV부문 수상작을 중심으로
- ▲김성수=광고소구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관한 연구-유머소구와 비유머소구의 비교-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 ▲부종배=미국NTIA의 스펙트럼 표준에 대한 분석 연구
- ▲이영진=고도처리(오존 및 인화성황산)에

- 의한 정수수질개선 연구
- ▲신상호=센드파일을 이용한 연약지반처리 사례연구
- ▲김은태=대도시전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활성화와 방안연구
- ▲이준성=흙막이 구조물의 토압이론과 실측치의 비교연구
- ▲최기경=Cake반죽의 Mixing시간과 비중이 Cake Sheet 부피팽창에 미치는 영향
- ▲김세곤=콩배아로부터 Isoflavone의 대량생산을 위한 추출조건
- ▲이임경=로얄젤리 품질에 대한 벌꿀 첨가의 영향
- ▲최성희=맥주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미치는 발효온도의 영향
- ▲이영숙=개량누룩에 의한 탁주의 품질 개선
- ▲도미경=초등학교 급식에서 음식 안남기기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오종연=GIS를 이용한 지하매설물정보의 연관성과 3차원 가시화 분석
- ▲고지현=JavaOS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은주=알루미늄 박막과 합성수지 다격실 구조로 이루어진 관형 소재의 단열특성
- ▲김재기=설문조사를 통한 전기용접 근로자의 안전사고 유형분석 및 원인고찰

### 문화예술대학원

- ▲송정란=현대의 삼국유사 설화수용에 관한 연구-미당 서정주의 시를 중심으로
- ▲이종현=오규원 시의 변모양상 연구
- ▲정영미=김동리 소설의 어머니상의 연구
- ▲조수영='화사집'의 여성상 연구-설자의 인식변화와 관련하여

- ▲김재순=한국 TV드라마의 예술적 가능성 연구-영화와 TV단막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정승일=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테크닉에 대한 연구-2차원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최진석=현대 영화 연기에 적용된 Method Acting에 관한 연구
- ▲문선일=한국사원 사찰 단청에 나타난 문양요소의 고찰
- ▲김원선=염산재에 사용되는 태평소가락 분석
- ▲정지은=화청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연구-회신곡을 중심으로
- ▲박상인=조형 예술적 관점에서의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이소영=패션디스플레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대학원

- ▲이흥석=해방대 간부들의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적연구
- ▲김상유=소비자 민족을 위한 여행상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이희복=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 ▲이병규=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울산광역시 구역 조정을 중심으로
- ▲최병욱=조선시대의 자연관과 자연자원관리체계-조선왕조실록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현=청소년 여가선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오태영=병원조직내 의료기사직단의 갈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최문수=경정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실행에 관한 연구-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 새내기, 오늘부터 바쁜 한주일

## O·T 22·23일, 24일부터 새터·신체검사 등

**학교** 9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늘(22일)부터 양일간 진행된다.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실시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학교홍보 영상물 상영 △불교합창단 공연 △서운길(불교학) 교무처장의 분교 교육제도 안내 △송석구 총장 신입생 환영사 및 교무위원 소개 △산악인 박영석 동문 강연 △김정희 선생의 대학생활과 예절 강연 △백상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신입생 모의 토익시험이 실시되며 4시 20분부터는 수강신청안내가 이어진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지정된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한편 신입생 신체검사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분교 보건소에서 실시되며, 이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일정을 고려해 각 단과대 일정에 맞추었다.

**총학생회**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새천년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모토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실시한다. 올해로 7번째 맞이하는 이번 새터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법과대, 경상대, 생자대, 공과대, 정산대가, 26일부터 28일까지 문과대, 이과대, 사과대, 사범대, 예술대, 야간강좌가 각각 2박 3일간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날-입소식, 중앙공연관람, 단위행사, △둘째날-청년강좌, 단과대 행사 △셋째날-퇴소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새내기 청년 강좌

에는 이영미(문화평론가)씨가 강사로 출연한다. 한편, 불교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설악산 백담사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다녀왔다.

### 신입생 모의토익시험 실시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오는 22일 9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토익시험을 실시한다. 96년도부터 실시된 이번 시험은 시사영어사에서 출제된 문제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학술문화관, 동국관의 각 강의실에서 치러지며, 시험성적은 3월 15일 이후 개별통보된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무리... 97년 8월 기공식 이후 정보매체센터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일 정보매체센터 앞길의 포장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회전무대

### 황의 눈물?

O... "한글이 왕입니다요!" 최근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자병용' 시행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 그러나 공문서를 비롯해 표지판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병용할 경우 한글을 많이 쓰는 현 추세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걱정어린 표정을 한 세종대왕 알, "나랏 말씀이 등국에 다르니 한자병용 문제는 고등어 고르는 것보다 신중해야 하느니라!"

### 도서관

O... "밥먹는 차단기(?!)"

분교 중앙도서관은 출입이 허술하기로 유명해 많은 외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

도서관 입구에 있는 차단기가 식사시간에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도서관의 잦은 도난사고와 소음, 좌석부족 등의 문제들은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하여금 더욱 커졌으니.

이에 밥 먹고 들어오던 한 학생 알, "나는 아직도 차단기가 지난 점심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 나 VS 너

O...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최근 이해찬 장관이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조심'의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는데, 과거 운동권 출신인 이 장관의 이런 행동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평범한 학생 이상관의 행동에 대해 운동권 학생에게 물어보니 운동권 학생 알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돼지!!"

### 왜 늘렸을까

O... "똥나물 시루 같은 학부실!"

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이 마무리 돼가고 있지만 재학생들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알아본즉, 재학생과 신입생 약 3·4백명이 사용해야 하는 학부실은 스무 명만 들어가도 꽉찰 정도로 협소해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나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그러나 동약은 아무 것도 모르는지 편입생, 신입생의 정원은 작년보다 늘어난 실정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안돼는 줄 알면서 왜 늘렸을까? 아예 똥나물을 길러라 길러"

## 복학·재입학 접수 오늘(22일)부터 양일간

교무처(처장=서운길·불교학) 학적과는 99학년도 1학기 복학·재입학 접수를 받는다.

오늘부터 양일간 각각 복학원서 1부와 재입학 원서 1부를 작성·접수 해야 하며 군복학자의 경우 복학원서 1부와 함께 기전역자는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역예정지는 전역예정자 각서 1부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 양주동 전집 완간

### 고가연구·시·수필 등 선생의 업적 잘 드러나

한국 국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 양주동 선생의 '양주동 전집'이 완간됐다. 지난 93년 제자들에게 의해 결성된 양주동 전집 간행위원회(회장=임기중교수·국문학)는 95년 총 12권 전집 중 1차로 다섯 권의 책을 간행 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7권의 책을 간행함으로써 완간한 것이다.

고가연구에서부터 시, 수필, 번역, 국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전집의 10·11·12권은 1920년대부터 70년대 까지 신문, 잡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수필, 콩트, 반언소설 등을 모아 엮은 것이다.

## "불법 상행위를 조심하세요"

### 학복위·학생처·생협, 상행위 방지캠페인 벌여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대상 교재 강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복지 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와 학생처, 생활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상행위 방지 캠페인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늘(22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상행위에 응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장충체육관과 교내 출입문 지역에 부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캠페인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 정보매체센터·룸비니관 완공 눈앞

### 효율적 공간활용위한 논의 필요

99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할 정보매체센터와 룸비니관의 완공을 앞두고 공간배치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정보매체센터의 경우 정보산업대와 전자통계학과(아)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학생 자치공간에 대한 공문

을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97년도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과 학생회실이 없었던 정보통신공학과 자치공간 등을 마련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대위측과 학교측은 타결되지 않은 학부실 관련 협상을 벌

여나가고 있으며, 룸비니관 또한 식당조정을 둘러싼 공간 배치에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매체센터와 룸비니관 건립으로 인한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복학·편입생 수강신청 실시

교무처(처장=서운길·불교학)는 9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복학생, 편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학생의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을 이용해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교내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입학생은 오늘(22일) 오후 1시 30분에 분교 중앙당에서 수강신청 및 학사 안내 이후 해당 단과대별로 수강신청을 한다.

### 6학기 조기졸업자 전화성군을 만나

## "빌게이츠를 이겨보고 싶습니다"



전화성(컴공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다란 꿈과 희망을 품고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시간이 채 흐르기 전에 자신의 꿈을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은 정말 꿈일 뿐이었다고 변명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

람도 있다. 물론 자신의 꿈이 정말 '꿈'이 될지라도 말이다. "빌 게이츠를 꼭 이겨보고 싶어요. 손짓하나, 말 한마디로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말이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구체적인 공부를 하고싶어 1년이라도 단축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전화기 평점 4.13, 최초 6학기 조기졸업자. 컴퓨터 공학과 96학번 전화성 군이다. 전공이 가장 자유롭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1년이나 단축할 결심을 한 것도 윈도우를 뛰어넘고 MS사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 때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조기졸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학년 1학

기를 마치고 여름 계절학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다. 당시 한 교수님께서 "2학년이 무슨 배정으로 계절 학기를 듣냐"며 의아해 하기도 하였고 조기졸업을 위해서 단계를 바꾸어 수강할 수밖에 없어 선택을 틀어 겨 혼자서 공부해야 했던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님 말씀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도서관에 있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예습 복습은 물론 철저히 했어요." 분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그는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과학원 입학시험 때도 "남보다 일찍 졸업해도 제대로 배우고 왔네"라는 평을 들었다"며 교수님께 고마움을 돌리는 겸손함도 잊지 않았다.

"늦텐 놀고 공부 할 땐 공부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축구대회나 가요제 같은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98년도에는 학생회 부회장으로 일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해서 구입한 티코로 자동차 경주 대회에 나가 입상한 경력도 있고 비록 입선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올에는 아마추어스키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기자는 줄 곳 그가 정말 조금 전에 본 성적증명서의 주인공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아버지도 우리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이세요." 우연히도 교칙에 게시된 아버지와 같은 모교를 갖게 된 그는 동국대가 두 부자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었다며 꼭 환원하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진정한 젊은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김진아 기자

## 복수전공 신청(구제도)

1. 지원서 접수기간 : 99. 3. 8(월) ~ 3. 9(화)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적과

3. 지원자격

가. 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번학기에 7학기 등록을 하고 99년 8월

조기졸업신청자 및 200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

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단, 4학년 2학기는 제외)

4.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수여일자가 동일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함.

나. 제1전공의 졸업요건 취득후 복수전공이 허가된 자는 해당 복수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서 5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제1전공 이수시 복수전공 학과의 부전공을 취득한 자는 21학점이 인정됨.

## 교무처장

## 특별시험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예정)
RGC005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1	1	09:00-09:50
RGC008	교필	실용영어1	1	10:00-10:50
RGC006	교필	영어회화1	1	11:00-

2. 응시자격 : 99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

3. 전형료 : 과목당 30,000원

4. 최대신청학점 : 3학점(3과목)까지

5. 원서접수기간 : 99. 3. 2(화) ~ 3. 4(목)

6. 시험일시 : 99. 3. 6(토) 09:00~

7. 접수처 : 교무처 교무과

8. 전형방법

가. 컴퓨터활용과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하게 한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정보검색등의 실습테스트).

나. 실용영어1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Listening test 실시함.

다. 영어회화1 : 5가지 항목의 평가기준(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에 근거하여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진행.

9. 합격자 발표 : 99. 3. 11(목) 14:00

10. 성적등급표시 :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A+, A°를 부여함.

11. 유의사항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에 해당과목은 수강신청을 불허함.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 교무처장

## 생협 출자금 환불 안내

1. 대상자 : 98학년도 전기졸업자(학부, 일반 대학원)중 생협에 출자한 조합원

☎ 1999. 2. 25(목) 학위 수여자

2. 환불 기간

1) 1차 : 99. 2. 22(월) ~ 3. 5(금)

2) 2차 : 3. 8(월) ~ 계속

☎ 가능한 1차 환불 기간내에 수령 바랍니다.

3. 환불 장소

1) 1차 : 각 대학/대학원 교학과 및 학과 사무실

2) 2차 : 생협 사무실(혜화관 1층)

4. 환불 내용 : 출자한 원금(10,000원)+기념품

5. 환불 방법

1) 해당 졸업생 본인이 출자금 환불 명부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1차 환불 기간내에 수령하지 못한 졸업생은 생협 사무실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 2차 환불시는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지참 요망

6. 문의처 : ☎ 2260-8951~3, FAX 2271-3129.

통신(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공통 ID : dgucoop

E-Mail : dgucoop@cakra.dongguk.ac.kr

HTTP://dgucoop.dongguk.ac.kr

## 생활협동조합

# 영상매체비평

## - 영화편 '쉬리'

“분단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장르적 접근은, 우리의 현실을 영화를 통해서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쉬리'는 한국형블록버스터 액션영화의 출현을 가능케한다. '쉬리'의 미덕은 많다. 우선 '장군의 아들' 이후 '게임의 법칙' '광개수염' '남버 3' 등 뒷골목 강패들의 세계가 전부였던

액션 장르에, 남북분단상황이라는 현실적 긴장감을 접목시켜 첩보액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것이다. 액션 장르의 소재적 확대는 그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분단의 특수성을 영화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허구의 공간이 아니다. 각본에 기초해서 연기로 형상화 된 가상의 세계지만 그것은 현실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쉬리' 같은 첩보액션을 비롯해서 분단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장르적 접근은, 우리의 현실을 영화를 통해서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소재적 확대는, 총기 휴대가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적 여건으로 그동안 갈아간 쇠파이프가 액션 장르 소도

구의 전부였던 것에 비해 본격적인 총격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투캅스' '광개수염' 등에서 병정놀이처럼 어설프게만 등장했던 총격씬이 '쉬리'에서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쉬리'에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다. 한석규는 지쳐 보였다. 그의 연기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역력했고 다른 영화에서 들었던 그의 비슷한 말투는 이제 식상함을 주었다. 송강호 역시 '남버 3'의 개성적인 연기가 '조용한 가족'을 거치면서 범상하게 마모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다만 남측 정보요원 한석규, 송강호 팀에 맞서는 북측 특수부대 팀장 최민식의 광기 어린 연기가 관객들을 붙잡았다.

각본의 논리적 허점도 많다. 시가전 총격씬에서 여자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던 최민식은 다음 장면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그 상황을 빠져나와 있으며, 남측 요인을 암살했던 북측 저격수와 한석규의 애인이 동일인이라는 설정은, 그녀가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거쳤다고 해도 무리로 보인다. 전반부에 등장한 저격수 이방희와 한석규 애인으로 나온 김윤진은 체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성형수술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실수가 영화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고 있다. 각본이 좀 더 치밀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눈썰미 있는 관객이라면 이방희가 한석규의 애인과 동일인이라는 설정을 곧 눈치채게 된다. 이방희를 뒤쫓는 긴박감과

복측 첩보부대의 잡임에 의한 혼란 상황이 뒤섞이면서 영화가 어수선했다. 그리고 '구미호' '은행나무 침대'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특수효과는 어설프게 보인다.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쉬리'는 할리우드의 백분의 일에 불과한 제작비로 한국형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 영화가 이런 장르적 모험과 상상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현시킬 때, 할리우드에 맞설 한국적 감수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대중예술의 핵심에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재봉  
영화평론가

# 졸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4년 이상 열심히 갈고 닦았을 칼을 많은 졸업생들이 칼집에서 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칼자루는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 졸업에 대한 짧은생각

졸업! 분명 대학 4년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다. 졸업은 정말이지 특별하다. 자신의 과거를 꼼꼼히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업식'은 일시적인 행사이지만 '졸업'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녹아나 있다.

과거,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십 수년간 키워온 꿈들을 두 주먹에 가득 쥐고 그 꿈들을 실현해내겠다고 수십번 결심했다. 졸업은 그러한 꿈들이 하나하나 이뤄졌던 때, 혹은 좌절되던 때, 그도 아니던 망각하고 만 것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과거에 품었던 꿈들 중 가장 민망한 것을 선택해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졸업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 경제 위기시대의 '취업대란'이 그 장애물이다. 한 방송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졸업생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한 여대생은 실업을 비판하며 자살까지 했다. 졸업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최악의 실업률, 비단 졸업생뿐만 아니다. 사회 전체가 우울하다.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이 시대의 졸업은 우울하다.

졸업식은 다르다. 아무리 불투명한 미래를 가졌더라도 그날만큼은 모두들 함박웃음을 짓는다. 여기저기 사진사, 꽃장사, 커피장사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학사모, 가운을 온 가족이 돌려 입으며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눈다.

문득 영화 '졸업'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 버스 안에서 그들의 표정은 의외였다. 꿈을 이뤄냈다는 성취감도 잠시, 그들의 표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마음은 무겁게 하는 최악의 실업률, 비단 졸업생뿐만 아니다. 사회 전체가 우울하다.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이 시대의 졸업은 우울하다.

이 시대의 졸업은 행복한 현재이자, 불안한 미래이다. 김미경 기자

## 이색졸업자 인터뷰

### 서울캠 최고령



심달십(경제 99졸)

1934년, 충남 서산 태생. 올해 최고령 졸업생인 심달십(경제99졸)씨의 첫 번째 약력이다. 재학생들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

“부끄러운 일이야, 별로 내세울 것도 없구. 남들은 4년만에 졸업하는데 나는 40년이나 걸려 이제야 졸업을 하네”라며 겸연쩍은 모습이 역력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겨우 등록

금을 마련해 들어간 대학을 2년 만에 포기했다. 경찰이 된 그는 학력제한으로 인해 간부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그때 동지들이 대학을 마치고 간부로 들어오는데 쥐구멍에 숨고싶었지”라며 안타까워했다.

“TV에서 카톨릭대 총장이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을 봤어. 그리고 얼마뒤에 재입학 제도가 생겨난 거야.” 제직된 학생들이 다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입학제도는 재수를 준비

### “40년만에 졸업합니다”

하던 그에게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본 소식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본교 3학년으로 재입학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나를 교수로 오해를 해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당황했지.”라며 깔깔 웃었다. 교수들도 가끔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민망한 나머지 얼떨결에 인사하기도 했다고.

학과 공부에 충실한 그는 아침 7시부터 도서관에 자리를 잡는다. “아침 7시에 가도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도 난 아침 일찍 와서 내 지정석을 만들어 놔 문체없었지.”라며 학구열도 비쳤다. 4학년때는 그런 노력으로 학점도 꽤 괜찮았다며 흡족해했고 또한, 결석도 한번 하지 않을 정도였다.

“흔들림없이 깨끗하게 무엇이든 해나간다면 꼭 이룰 것”이라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게 되었으니 여한이 없다며 말을 마쳤다. <인>

### 경주캠 창업



진일천(관광 99졸)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초기단계에 있을뿐인데 사업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라며 쑥스러운듯 웃음을 지어보이는 진일천(관광99졸)군.

그는 경상북도에서 지원받는 사이버 관광정보 동아리에서 관광과 학생 7명을 주축으로 관광 가이드, 이벤트 준비등의 관광정보를 제공해오다 현재 동

경과 학생 7명을 주축으로 관광 가이드, 이벤트 준비등의 관광정보를 제공해오다 현재 동국투어리안이라는 벤처기업의 기획팀장으로 활동계획중이다. “현 여행사에서는 관광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여행객들도 단순한 관광에 그치는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행의 참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라며 그는 사업시작의 동기를 밝혔다.

처음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부족한 지식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기술·장비들도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 “도전정신이 중요합니다”

힘이 들었다는 그는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관광과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힘이 된다”며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음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 1월에는 금강산관광과 함께 청소년 신라문화 체험탐방이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라고 그는 만족하는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현재 사이버 관광정보 동아리는 기업이 아닌 창업준비 단계에 있는 기구로써 관광

객들이 연중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전자 상거래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는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에게 남들이 쉽게 손대지 않는 사업에 대해 수입을 바라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이런일을 해보는게 사회생활하기에도 뒷받침이 많이 될 거구요. 그리고, 기술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단합이 더 중요하죠.”라며 벤처 사업 추진요령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영>

## 자양소식

### 학교 밖에서

#### 소정과 금강산

금강산의 그림에 평생을 바친 산수화의 대가 - 소정 변관식의 깨어있는 작가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정의 작품 외에도 '소정과 동연사'라는 코너에서 한국근대미술을 개척한 동료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4월11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750-7838



#### 장보고의 꿈

외국 순회공연을 나섰던 뮤지컬이 다시 텔린트 임동진 주연으로 서울무대에 선다.무대가 아름답다는 평을 받았고 우리의 소박한 노래가 잘 살아있다. 사물반주를 곁들인 민속놀이, 힘이 넘치는 바라춤이 선보여진다. 다음달 7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511-1060



#### 고명근 복제와 복고

고명근씨는 사진매체를 조각이나 설치 미술에 접목해 독자적 조형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복제는 주제어래 대량생산시대를 나타내고, 복고란 주제는 지나간 시간의 환영을 담아낸다. 다음달 17일까지 아트스페이스서울, 학교계동시 개최 720-1524, 739-4397

#### 폼바

말문이 막힌 시대에 거지라는 신분을 빌려 할 말을 속 시원히 해대며 인기를 모았던 폼바가 최종원씨를 주인공으로 공연된다. 전남 무안군 거지촌 대장의 일대기를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꾸렸다. 다음달 1일까지 종로5가 연강홀에서, 747-4322



## 메아리

### 아! 세기말

▲“2000년이란 것이 인간들이 정한 약속, 즉 책력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멸종이나 멸망도 먼 미래, 우주차원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콥드. “시간의 종말이란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1000년을 위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쓴 발명

품이므로 인류 각자가 두려움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역사학자 장 들뤼모 ▲영화 '스트레인저 데이즈'에서는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 사이의 하루동안 일어날 수 있는 '세기말 소동'을 그리고 있다. 그곳에서 그려지는 세상은 사이버 세계에 종속된 인간들과 세기말을 두려워 하는 인간들이 벌이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낯설고 음울한

세계이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세기말을 떠올릴 때 연상할 수 있는 내재된 광기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5번째로 체세포 복제 동물인 암소이자 서울대 수의학과 생물공학연구소가 3년간 진행해온 연구결과로 태어났다.

세기말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인간 게놈프로젝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간유전자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면서 질병의 치료단계를 넘어선 인간복제 논란도 함께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로인해 유전자생명공학의 윤리·안전성 여부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다가오고 있다. ▲아쩌면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은 세

기말이 아니라, 세기말 이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일지도 모른다. 사이버 세계의 무한한 확장으로 영화에서 예견되고 있는 일들이 현실로 대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이면서 숨겨진 인간복제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는 세기말 현상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이혜경 편집부장